

광주 풍암호수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도전

市 ‘비전선포식’ 공원 명품화 추진
수질 개선…수변 힐링공간 등 조성
3대 국가공원 보유 도시 도약 총력

광주시민의 대표 휴식처인 풍암호수가 대대적인 변신을 앞두고 있다. 수면적은 그대로 유지하되 수질은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수변공간은 품격 있는 힐링 명소로 조성해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광주시는 최근 서구 중앙근린공원 풍암호수 일원에서 ‘명품호수공원 조성’과 국가도시공원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에는 강기정 시장과 김이강 서구청장을 비롯해 김용섭 풍암호수주민협의회 회장, 광주시의회 이영노·심철의 의원, 김재만 서구주민자치위원장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명품호수공원 조성 계획 발표, 국가도시공원 비전선언문 낭독, 시민과 함께하는 미래소망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비전선언문에는 ‘기후위기 시대 녹색허브’, ‘시민국민 중심 공간’, ‘평화·인권·민주주의 계승’, ‘대한민국 대표 명품공원 조성’ 등 4대 비전이 담겼다. 광주시는 중앙근린공원을 자연 생태계가 살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이강 서구청장, 김용섭 풍암호수주민협의회회장 등이 지난 21일 오후 서구 풍암호수 야외무대에서 열린 ‘명품 호수공원 조성 및 국가도시공원 비전 선포식’에서 국가도시공원 비전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아숨쉬는 친환경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풍암호수는 1961년 농업용 저수지로 축조됐으나 도시 개발과 함께 시민들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풍암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 개발에 따라 경관호수로 기능이 변화

했고 여름철 반복되는 수질 악화와 시설 노후화로 종합적 정비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 광주시는 주민협의체와 논의를 거쳐 2023년 11월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평균 수심을 28m에서 1.5m로 조정 ▲담수량의 3분의 1을 지하수로 대체 유입 ▲비점오염원·외부 우

수 차단시설 설치 등으로 수질을 상시 3급수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수면적은 11만9천814㎡를 유지하면서 호수 주변은 힐링공간으로 대폭 개선된다. 2km 산책로 확충 및 폭 확대(6-10m), 2천500평 규모 장미원 (당초 계획의 1.3배), 국내 최대 규모

음악분수(길이 130m, 높이 50m)가 들어선다. 여기에 호수 백사장, 야외공연장, 수변데크 등도 조성해 시민들의 휴식과 문화 향유 공간으로 변모한다. 풍암호수 개선 공사는 오는 2027년까지 진행되며 산책로 부분 개방과 우회로 마련을 통해 시민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선포식을 계기로 중앙근린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본격화한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와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된 공원녹지법에 따라 지정 요건이 완화(최소 면적 300만㎡→100만㎡)되면서 총 280만㎡ 부지를 확보한 광주가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됐다. 국가도시공원 지정 시 광주는 무등산국립공원, 무등산권국가지질공원과 함께 ‘3대 국가공원’을 보유한 도시로 위상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은 물론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도 가능해져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가 마련되고 도심 열섬 현상 완화와 생태환경 보전에도 큰 효과가 예상된다. 강기정 시장은 “수질·시설·경관 등 모든 면에서 최고 수준의 명품 호수공원을 조성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녹색심장으로 만들겠다”며 “중앙근린공원이 대한민국 국가도시공원 1호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金지사 “산업현장 안전 사각지대 해소하라”

위험시설 전수조사 긴급 대책회의
모든 시설 중대재해 예방 노력 지시

전남도가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산업현장 위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교육과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등 부주의와 중대 과실에 따른 사고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22일 도청 재난종합

상황실에서 ‘산업안전 위험시설 전수조사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해 “최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산업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고위험 사업장을 전수조사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남도 실·국장과 시·군 부단체장,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 상공회의소, 전문건설협회, 농·수산 경영인

단체 등 유관 기관·단체가 참석했다. 이들은 ▲건설·제조업 사업장, 위험물질 취급시설, 밀폐공간 작업장, 소규모 영세사업장 등 전 분야 일체 점검 ▲최근 산재 이력이 있는 고위험 사업장과 안전취약 업종 집중 관리 ▲사업장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이행계획 점검 방안 ▲유해·위험요인 개선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등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전남도는 시·군과 관계 부서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각 경제·산업

단체와 힘을 모아 현장 중심의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외국인 노동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도민과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산업현장에서 일하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이행하고 위험 요인을 경고할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해 부주의와 중대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를 사전에 차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또 “산업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유관기관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전남지역 민간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재정 기자

광주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 성료

광주 대표 공예박람회인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가 전국 200여개 공방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끝났다. 광주시는 지난 22-2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14회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를 열고 공예 문화 진흥과 수공업산업 활성화에 나섰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서울·경기 등 타 지역 공예인들의 참여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국적인 공예 박람회로 위상을 높였다. 200여개의 공예공방, 협동조합, 대학이 참여해 283개 부스를 운영했으며 ▲우수 공예브랜드 홍보관 ▲스타 공예상품 전시관 ▲공예 체험 부스 ▲공예 명품 특별전시관 ▲한국전연역박물관 팝업관 등 다양한 수공예 콘텐츠들을 선보였다. 지난 22일 개막식에서는 우수 공예문화상품에 대한 신뢰도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오핸즈(OHANDS)’ 인증패를 수여했다. 올해 인증을 받은 브랜드는 ▲이야기(器)의 ‘무등절리 다용도 잔’ ▲이치현 도예연구소의 ‘보듬이 3인 다기 모듬’ ▲에이앤즈협동조합의 ‘평두메 원앙 자수기러기’ ▲더자기플러스의 ‘달빛둥둥 굿판’ 등 4곳이다. /변은진 기자

전남 응급의료서비스 질 높인다

도, 응급실 이용자 만족도조사

전남도는 24일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응급실을 더 안전하고 따뜻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9월5일까지 지역 응급의료기관 38개소 응급실

이용객을 대상으로 2025년 응급의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 만족도 조사는 전남도 차원에서 처음 하는 것으로 응급실 이용 실태와 문제점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해 2026년 지역응

급의료시행계획에 반영, 응급의료 서비스를 높이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응급의료기관 38개소를 이용하는 20세 이상 80세 미만 도민 1천500여명이다. 조사 항목은 응급의료 정책 인지도·신뢰도, 응급실 이용 경험·만족도, 개선 필요 부분 등이다. 전문 조사원이 응급실 현장을 찾아가 도민과 직접 1대1 면담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조사는 도민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응급실이 단순한 진료 공간을 넘어 더 안전하고 더 따뜻한 치유의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응급실 진료환경 개선, 응급환자 안전 강화, 응급의료 신뢰도 제고 등을 추진해 도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응급의료 체계를 만들 방침이다. /김재정 기자

2025

손자녀 가족돌보미 사업

광주광역시

광주여성단체협의회

모집인원

수시 모집 (예산 범위 내)

모집기간

2025. 7. 21. ~ 11. 30.

돌봄수당

월20만원 (1일 4시간 이상 돌봄 원칙)

신청자격

1. 손자녀 6세 이하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인척
2.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으로 두자녀 이상인 세대
3. 손자녀의 부모와 조부모가 실제 광주 거주 아동 부모 중 1명은 아동과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4. 소득기준은 가구 소득 평균 150%이하인 세대
※ 휴직자(육아휴직 등)는 미취업자로 구분, 단, 출산후가 기간은 가능
5. 서비스 이용기간: 최대 3년 ※ 개월 수가 아닌 연단위로 산정함

신청방법

직접 방문, 팩스, 이메일로 접수
● 방문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24, 여성단체회관 3층
● 전화 | 062-363-9401~2
● 팩스 | 062-363-9403
● 이메일 | cow9401@hanmail.net

신청서류

1. 지원신청서, 서약서(광주여성단체협의회 홈페이지 www.gcow.or.kr)
2. 건강보험카드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부모 각각 제출)
3.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4. 소득증빙자료(부모 각각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월명세서(최근 3개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중 택1
- 사업자등록증 사본(자영업자의 경우)

문의처

(사) 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 전화 | 062-363-9401~2
● 홈페이지 | http://www.gcow.or.kr
● 카카오톡 채널 | http://pf.kakao.com/BKHCj?from=qr